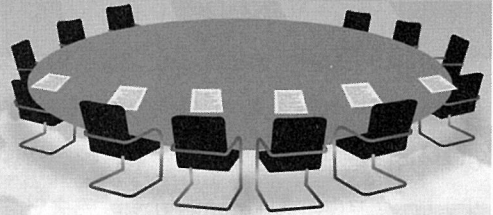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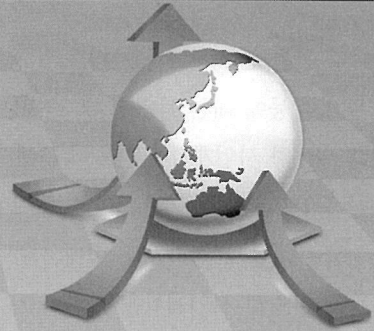


# 2012년 ITU 이사회

**설재진** 방송통신위원회 국제기구담당관 ITU 담당사무관

**박민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 1. 머리말

지난 7월 4일부터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도 ITU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금년도 이사회는 48개 이사국 대표단, 옵저버(Observer)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키 Mr. Ahmet Cavusoglu 의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제네바 대표부를 비롯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ITU 이사회는 연합의 최고위 의사결정기구인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의 회기 간 연합의 전반적인 관리와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2년 이사회는 ITU의 전략계획, 재정계획 이행현황 등을 검토하고 차기 운영 및 활동계획을 승인했으며, 연합의 역할 운영,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고에서는 2012년 ITU 이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주요 회의 내용

### 2.1 독립관리자문위원회(IMAC) 운영 보고

2011년 이사회는 PP-10 결의에 따라 독립관리자문위원회(IMAC: Independent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를 신설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사회와 사무총장의 감독 및 거버넌스 의무를 수행하는데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IMAC 의장은 1, 2차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사무총장에게 ITU 위기관리 체계 강화, ITU 윤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내부관리 소견서와 재무제표의 동시 발표 등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IMAC의 활동과 보고서에 감사를 표하고, IMAC의 권고사항을 이사회 산하 작업반에서 세부 검토하도록 하였다.

### 2.2 적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시험

적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시험(C&I: Conformance and Interoperability)에 대한 논의는 2008년 WTSA를 비롯하여 이사회, 전권회의 등 일련의 회의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사무총국은 지난 이사회에서 요청받은 C&I 사업계획서 초안(작성: KPMG)을 발표하였다. 사업계획서는 적합성 평가, 상호운용성 이벤트, 인적역량개발, 개도국의 시험설비 개설 지원 등 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본 보고서 분석범위의 제한성, 추가에 산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며, 시장연구 수행 및 보다 완벽한 사업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러시아, 브라질 등은 동 사업계획서를 지지하며 C&I 프로그램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무총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사업계획 중 기술적인 사항은 WTSA-12에서 재논의하며, 추가 시장연구 이행 여부는 금년도에 표준화국(TSB)에서 시험테스트를 한 후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사회는 동 사업계획서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리빙 도큐먼트(living document) 형태로 승인하였다.

### 2.3 인터넷 이슈

ITU의 역할 제고 및 ITU 활동범위 확대 등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온 인터넷 이슈도 지속해서 논의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국제인터넷공공정책 이사회 작업반의 운영방식, 특히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협의(open consultation)’의 운영에 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온라인’ 형태로만 진행할 것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미국,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 간 의견이 대립했으나, 장시간의 논쟁 끝에 공개협의를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무총국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신규 인터넷도메인 이름 시스템(신규 gTLDs) 하에서 정부 간 기구의 명칭과 약어가 오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ITU의 활동을 보고하여 러시아, UAE 등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편 2013년 개최되는 세계정보통신정책포럼(WTPF)은 ‘인터넷 이슈’를 주제로 5월 14일~16일,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2.4 미래 우주자산 국제등록 시스템 관련 ITU의 역할

로마사법국제위원회(UNIDROIT)는 ‘우주자산 이동장비 담보권 협약’에 대한 의정서(우주의정서)’를 마련하

고, 이와 관련하여 ITU에 우주자산 등기소 감독기관 역할수행을 요청한 바 있다. 2011년 이사회는 사무총장이 UNIDROIT 총회(2012년 2월)에 참관자로 참가해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이를 금년도 이사회에 보고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금번 이사회에서 사무총국은 UNIDROIT 총회 참가 결과를 보고하고, 동 이슈에 관한 최종결정은 전권회의(PP-14)에서 내려야 하는 바, 그전까지는 ITU가 관련 준비위원회에 참관자로 참가하기로 하고, 해당 역할수행에 지속적인 관심표명을 제안하여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미국, 인도 등 회원국은 역할수행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주의정서와 전파규칙 간 관계설정, ITU의 역할 및 목적, 필요자원 확보 방안, 협의방식 등 다수 이슈에 대한 명확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2.5 2012년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 개최 준비

2012년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는 통신요금 국제정산에 있어서의 원칙을 다루는 ITU의 업무규칙인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논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WCIT-12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기고서의 마감시점, WCIT-12 준비 이사회 작업반(CWG-WCIT) 논의 결과물에 대한 시민사회 공개여부 등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사회는 기고서 번역시간 및 타 회원국의 검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고서 제출 데드라인을 당초 개최 14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CWG-WCIT의 결과물인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안(TD64)’ 문서를 ITU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이 자국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 2.6 ITU 국제전기통신 규칙(ITR) 및 전파규칙(RR)의 온라인 상 무료 접근

브라질과 러시아는 ITU의 업무규칙인 국제전기통신규칙(ITR)과 전파규칙(RR)을 온라인상 무료로 제공할 것

을 제안해 회원국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편, ITU의 재정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개방대상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논의 결과 이사회는 ITU 업무규칙을 일반 모든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되, ITR은 영구적으로 제공하고, RR은 PP-14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ITU의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한 후 PP-14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2.7 2014년 ITU 전권회의 준비현황 보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ITU 전권회의에서 차기 전권회의(PP-14)를 성공리에 유치한 바 있다. 사무총국은 준비현황 및 계획(개최국협정 협상, ITU 내 '부산준비그룹' 설립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최재유 기획조정실장은 전권회의 준비 기반 구축을 위한 대통령훈령 제정(6.28 발령, 7.1 시행), 하반기 범정부 공식 조직 출범에 대비한 방통위 내 사전준비단 발족 등 우리나라의 PP-14 개최 준비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우리 정부와 PP-14 준비를 위해 매우 긴밀하고 즐겁게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 3. 맺음말

우리나라는 차기 ITU 전권회의의 개최국이자 의장수행국으로서, 연합의 관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대응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ITU 이사회 준비반을 올해부터 'ITU 이사회 연구반'으로 상설화한 바 있다. 동 연구반은 분야별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제 검토분석, 대응전략 마련 등 이사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금번 이사회는 상기와 같이 연합의 운영과 관리,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논의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의제가 금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기보다는 차기 이사회(2013년 6월 11일~21일)나 PP-14로 논의가 이관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는 ITU 이사회 연구반을 중심으로 이슈별 사무총국 및 주요 국가의 입장 파악, 국내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이사회 산하 작업반에 대한 대응 등을 지속하며 이사회 및 PP-14 의제대응 전략을 견고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